

### 1 감사원 결산검사에 따른 국가재무제표 오류유형 분석 및 개선방안



정 아 름  
사회적가치연구원 측정연구팀장

본 오피니언은 연구자가 수행한 연구를 바탕으로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오류 유형을 전수 검토하여 반복 지적 오류에 대한 결산검사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연구의 내용은 연구자의 개인 의견이며,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힌다.

\* 정도진·정아름, 「감사원 결산검사에 따른 국가재무제표 오류유형 분석 및 개선방안」, 『회계정보연구』, 제38권, 제2호, 2020, pp. 159~185.

본 뉴스레터에 수록된 내용의 원문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8eac867957d787b26aae8a972f9116fb](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8eac867957d787b26aae8a972f9116fb)

#### I. 서론

우리나라는 2011회계연도부터 국가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면서,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통해 국가재무제표의 적정성 및 정확성을 검토해 오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국회 및 언론 등에서 국가재무제표의 정확성 및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감사원의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에서 지적되는 오류 중 단순 회계처리 오류에 대한 지적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17회계연도에서는 감사원의 결산검사 지적 중 98%가 과거 연례적으로 지적한 오류 유형이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문적인 회계검사를 수행해야 하는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가 과거의 오류 유형을 반복 지적하며, 단순 오류를 지적하는 데 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반복 오류 지적은 국가재무제표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을 가져올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 시 지적되는 오류 사항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 II.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 지적 오류 유형 분석

감사원은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 시 회계기준에 따라 국가재무제표의 적정성을 검토하며, 적정하게 작성되지 않은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해 지적하고 국가결산검사 보고서에 해당 지적 건별로 오류 사항을 보고하고 있다. 국가결산검사보고서 부록에는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 시 지적된 오류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요약된 오류 사항 및 금액을 정리하고 있다. 이때 국가재무제표 지적 오류 유형을 총 7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7가지 유형은 아래와 같다. 그런데 국가결산검사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7가지 오류 유형은 포괄적으로 분류되어 있어, 오류 유형을 보다 세분화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 1) 자산 누락 및 중복 계상 등 오류
- 2) 자산재평가 대손 등 자산 평가 관련 오류
- 3) 건설중인자산 대체 및 자본적 지출 등 자산취득 관련 오류
- 4) 부채 누락 및 중복계상 등 오류
- 5) 자산 부채 및 계정분류 오류
- 6) 수익 및 비용 인식 오류
- 7) 재무거래 미제거 등 재무제표 통합 조정 오류

감사원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오류 유형들을 심층 분석하기 위하여, 국가재무제표가 도입된 2011회계연도부터 2018회계연도까지 지적된 오류들을 전수 조사하여 약 52개의 유형으로 세분화하였다. 그중 누적 지적 건수가 5개 이상인 오류 유형은 <표 1>과 같이 총 26개이다. 특히, 가장 많이 발생한 ‘무형자산의 비용처리오류’와 ‘자산취득 관련 경비의 비용처리오류’는 자산을 비용으로 처리한 오류로서, 국가자산의 체계적 관리라는 국가재무제표의 주된 작성 목적을 위협한다.

그중에서도 연례적이고 반복 지적빈도가 높은 10가지 오류 유형을 추출할 수 있는데, 이는 <표 1>에서 제시하고 있는 오류 유형 중 상위 10가지 유형이다. 연례적이고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상위 10가지 오류 유형은 과거 8회계연도 동안 552건이며, 이는 총 지적 건수의 57%이다. 이는 국가재무제표에서 같은 유형의 오류가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 시 절반에 해당하는 건수가 기계적으로 기존 오류 유형을 재지적함을 시사한다.

<표 1> 국가재무제표의 주요 오류 유형

(단위: 건)

	오류 유형	건수	오류 유형	건수	
1	무형자산의 비용처리오류	70	14	자산이관처리 오류	18
2	자산취득 관련 경비의 비용처리오류	68	15	BTO 회계처리 오류	18
3	자산재평가 오류	67	16	유가증권 손상 오류	16
4	계정과목 선택 오류	61	17	퇴직급여충당부채 오류	15
5	자산누락 오류	58	18	위탁자산 회계처리 오류	13
6	대손충당금 설정 오류	50	19	재고자산 평가 오류	12
7	미지급금 미인식 오류	50	20	표준단가 산정 오류	10
8	소송충당부채 오류	45	21	내부거래 조정 오류	9
9	비배분비용 회계처리 오류	43	22	국세수익 오류	7
10	계정대체누락 및 분류 오류	42	23	BTL 회계처리 오류	7
11	유동성 분류 오류	38	24	이자비용 오류	6
12	기간귀속 오류	36	25	교부금 부채누락 오류	6
13	감가상각비 오류	25	26	리스회계처리 오류	5

자료: 감사원, 「2011-2018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됨

### Ⅲ. 오류 유형 분석을 통한 결산검사 개선방안

감사원의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오류 유형의 경우 매뉴얼을 개발하여 사전검토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주요 오류 유형 10가지에 대해서 심층 분석하여 <표 2>와 같이 사전검토매뉴얼을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

<표 2> 주요 오류 유형별 사전검토매뉴얼

	주요 오류 유형	사전검토매뉴얼
1	무형자산의 비용처리오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출집행 내역서 중 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항목의 적요를 검토</li> <li>• 연구개발비 또는 수선유지비와 같은 비용항목의 추세 분석</li> <li>• 합계잔액시산표에서 월별 증가내역을 검토하고, 비정상적으로 많은 월의 세부내역을 확인</li> </ul>
2	자산취득 관련 경비의 비용처리 오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계잔액시산표에서 소모품비와 지급수수료 등의 월별 증가내역을 검토</li> <li>• 비정상적으로 금액이 많은 월의 세부내역을 추가적으로 확인</li> <li>• 적요 기재내용 및 예산상 지출항목을 통해 자본적 지출 여부 판단</li> </ul>
3	자산재평가 오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처의 재평가 결과와 dBrain의 재평가 결과의 비교</li> <li>• 면적, 공시지가, 공정가액, 평가방법 등을 순차적으로 검토</li> </ul>
4	계정과목 선택 오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잡손실, 잡이익, 선급금, 건설증인자산 등 지출 및 수입항목이 관련 계정과목과 연계된 것인지를 검토</li> </ul>
5	자산누락 오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출집행 내역서에서 자산취득과 관련된 항목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 항목이 재정상태표에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확인</li> <li>• 자산과 관련된 계약 및 인수 정보 등을 검토</li> </ul>
6	대손충당금 설정 오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에 대해 대손추산액의 합리적 근거자료를 확인</li> <li>• 이행기간이 장기이거나 금액이 큰 항목의 경우 추가적인 검토</li> </ul>
7	미지급금 미인식 오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출의무 발생시점과 부채 인식시점이 일치하는지를 검토</li> <li>• 지출의무가 확정된 부분이 재정상태표에 부채로 계상되어 있는지 확인</li> </ul>
8	소송충당부채 오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처의 소송충당부채 설정기준에 따라 소송충당부채금액을 추정하고 해당 금액이 재정상태표에 적정히 인식되고 있는지를 검토</li> <li>• 전기 소송충당부채가 존재한다면 반드시 현재 소송 진행상황을 확인</li> <li>•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 여부 주의 필요</li> </ul>

주요 오류 유형		사전검토매뉴얼
9	비배분비용 회계처리 오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정운영표의 비배분수익 또는 비배분비용으로 표시되는 항목 중 적요를 통해 프로그램총원가나 프로그램수익으로 구분해야 하는 항목이 있는지를 검토</li> <li>감가상각비 항목이 비배분비용으로 표시되어 있는지를 집중 검토</li> </ul>
10	계정대체 누락 및 분류 오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급금과 건설증인자산 계정과목의 세부명세서에서 취득완료 예정일 등 상세내역을 확인</li> </ul>

#### IV. 결론

이상의 오류 유형 분석을 토대로 감사원의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매년 반복 지적되고 있는 오류 유형에 대해서는 오류 유형별 검사매뉴얼을 개발하여 실지감사 이전에 사전검토를 활성화시킬 것을 제안한다. 반복되는 오류들을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실지감사에서는 보다 전문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사항에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결산검사 실지감사 시 전문적 판단이 동반되는 오류에 집중하는 것이 국가재무제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나아가 국가재무제표의 활용성도 높이는 기초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국가재무제표가 도입된 2011회계연도부터 2018회계연도까지 감사원의 결산검사 시 지적된 960건의 오류들을 취합하여 반복 오류 유형을 식별함으로써, 국가재무제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향후 감사원의 결산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함에 의의가 있다. 향후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와 관련된 의미 있는 연구가 활발해지길 기대한다.